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 도 자 료</h1>	2016. 4. 7(목)	
		작 성 . 문 의	국정운영실 행정관리과 과장 이정기 / 사무관 류준호 (Tel. 044-200-2094)
* 엠바고 : 4.7(목) 14:30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	

선거사무 현장에서 공명선거 준비상황 최종점검

- 황교안 총리, 7일 명동 주민센터 찾아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 참관 및 격려
- 총선 불법행위 엄정대처,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마지막까지 역량 집중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4월 7일(목) 14시에 서울시 중구 명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뒤 '사전투표 최종모의시험'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.

* (참석) 김성렬 행자부 차관, 조송래 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,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
최창식 중구청장, 김종재 명동 주민센터장 등

○ 이는 지난 3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'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'*를 통해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, 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소를 직접 방문한 것이다.

* (참석) 법무·행자·문체부 장관, 경찰청장 및 외교부 1차관

○ '사전투표 최종모의시험'은 4월 8일·9일 양일에 시행되는 사전투표에 앞서 4월 7일에 3,511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시행되는데 투표시설, 비상상황 관리, 장애대처방법 등을 점검한다.

* 총 3차례에 거친 사전투표 모의시험 실시(1차 3.15, 2차 3.29~3.30, 3차 4.7)

- 황 총리는 검찰과 경찰이 금품수수,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,
 - 선거 막판에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을 철저히 차단하여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.
 - 또한 행자부 등 관계부처가 사전투표를 비롯한 투·개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인력지원 및 안전대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,
 - 정전·통신장애·테러 등에 대비하여 매뉴얼 숙지 및 적응훈련 등 비상시 대응방안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.

- 황 총리는 내일부터는 사전투표(4.8~4.9)가 이틀 동안 실시되는 등 투표가 실제 진행되므로,
 - 선거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거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.